

# “대한민국 성장판 열 발전 매진”

강기정 광주시장

대통령 취임 축하현수막 게시  
핵심현안 국정과제 반영 집중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모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며 이재명 대통령이 짚어질 ‘책임과 사명’을 광주도 함께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메시지를 통해 “광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전국 1위로, 이재명 정부 탄생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며 “광주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가 나아오를 때이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새 정부와 뚝뚝뚝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사와 전일빌딩245 외벽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투표를 1위를 기록한 광주시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고 인공지능(AI), 미래차, 국가주도 민군공항 통합이전 추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주요 지역 현안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수막 문구는 국민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파랑색과 붉은색을 함께 사용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발전 청사진을 담은 ‘광주의 제안’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일만 남았다”며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기 위한 광



4일 광주 전일빌딩245(왼쪽)와 전남도청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새 정부에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을 통한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조성 △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추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광주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이 보내준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에 광주는 140만 시민의 열망과 소망을 담아 언제나 큰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김용현 기자

# “진짜 대한민국 동반자 될 것”

김영록 전남지사

국민이 주인되는 성장시대  
“기본소득 등 공약 함께 노력”

맞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케이(K)-이니셔티브’ 시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과 에너지기본소득 추진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AI 기업을 끌어모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AI 혁명 시대, 세계 최대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 데이터 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굳게 약속한 전남 7대 지역공약에는 전남도민의 오랜 꿈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립의과대학 설립,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허브 조성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순천에서 즐거지게 쏘아지는 빔줄기 속에도 유세 현장을 굳건히 지킨 전남도민께,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께선 큰 절을 올리며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따뜻한 약속과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더 빛나는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이루고자 한 그 소중한고 간절한 꿈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암노적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진짜 대한민국’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 빛나는 미래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메시지를 통해 “성남 공장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면서 굵은 세

상을 빠르게 퍼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삶 자체가 인간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자 용기 그 자체”라며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철학인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새 정부 철학과 방향에 발

## 전남도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담팀’ 구성

김 지사 단장 현안사업 추진  
정부 2차 추경 등 본격 대응

전남도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 대응 TF(전담팀)를 꾸려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전남 미래발전 절호의 기회”라며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 국고확보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해 시군과 함께 공약 세부과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와 30조 규모로 기대되는 정부 2차 추경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주요 공약 과제는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수당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문화허브 조성 등이다.

국정과제 대응 TF는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정책 분과별로 15개 실국이 참여하고, 22개 시군도 함께한다.

전남도는 지역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해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남 7대 지역공약의 세부 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정부 부처와 국정과제 수립기관에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정부 2차 추경 추진이 예상된다.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30조 추경은 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도약의 기틀을 갖췄지만, 지난 정부가 원전에 집중해 답보상태로 3년 허송세월 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대선 공약으로 여러 번 언급된 만큼 잘 준비해 전남에서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330곳 안전점검

급경사지·교량·지하차도 등

광주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시설 330곳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7월31일까지 실시한다.

급경사지, 교량, 지하차도, 하천시설 등 우기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우선순위에 높여 신속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자치구·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시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 등 결함 여부는 물론 시설물의 배수처리 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펌프 등 각종 설비 작동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한 후 신속한 위험정보 전파, 사용금지·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추적 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우기 안전관리 기간

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민관 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북한 시 시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기상이 반복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점검과 예방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질적 점검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승한 기자

## 계엄 비호 ‘준엄한 심판’ …국힘, 광주·전남 완패

평균 8.28% 두 자릿수 붕괴  
봉선동·광양 금호동 등 급락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12·3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국민의힘에게 철퇴를 내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지난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윤 전 대통령 득표율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주에서 8.02%, 전남에서 8.54%를 얻는 데 그쳤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 전 대통령이 얻은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광주·전남 득표율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였다. 역대 대선으로 볼 때 김문수 후보는 보수 정당 후보로는 광주는 두 번째, 전남은 세 번째 득표율을 기록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광주 7.76% 보다 앞섰고, 전남 10%보다는 낮았다.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광주 1.55%, 전남 2.45%에 그쳤다.

진보 진영의 텃밭임에도 유독 보수 표심이 강했던 광주 남구 봉선동과 광양시 유권자들의 민심 이반도 두드러졌다.

김문수 후보는 봉선2동 5개 투표소에

서 13.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록한 21.87%보다 8.49%p 하락한 수치다.

지난 대선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국민의 힘에 많은 표를 줬던 광양 금호동 득표율(28.14%)도 이번 대선에서 21.29%로 6.85%p 하락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상 계엄, 대통령 탄핵, 내란 종식, 정권 교체 여론이 겹치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민주당 전체 세력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호남 2당의 위치를 굳히게 했으나 지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으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용현 기자

## 전남도-시군 ‘계통안정 ESS 지원단’ 운영

전력거래소 경쟁입찰 공고  
지역사업자 부지발굴 지원

전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계통안정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단을 구성, 지역사업자의 중앙 입찰을 적극 지원한다.

전력거래소가 지난달 ESS 중앙계약 시장 경쟁입찰을 공고한데 따른 조치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계통 부족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담아 놓는 이른바 ‘전력저수지’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잉여전

력을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설비다.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와 연계한 ESS설비를 구축한 후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전력을 ESS에 충·방전하고, 충방전 전력량에 낙찰단가를 적용받아 15년 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도에서 이어 육지부에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육지부 입찰물량은 충·방전 설비 용량 기준 500MW 규모다. 최소 10MW에서 최대 100MW까지 입찰이 가능하다.

충·방전 설비용량 500MW는 1시간에

500MWh의 전력량을 충방전할 수 있는 설비다. 이번 중앙계약 입찰물량은 6시간까지 충·방전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저장용량 기준으로 3,000MWh, 사업비로는 1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하루 전력소비량 10kWh 기준으로 하루 동안 2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다.

전남, 광주, 전북,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 133개 계통관리변전소에 연계가 가능한 설비에 한하며, 전남이 51곳으로 가장 많다.

전남도는 시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ESS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